

‘AI 면접관 뚫어라’... CJ 경험 롯데 관심사 LG 도전 ‘어필’

잡코리아 기업별 자소서 유형 분석
성공·실패경험 사례 적절히 활용
최근 이슈, 기업과 상관관계 살피
긍정적 방안·견해·아이디어 제시
종교·정치적 사안 가급적 삼가야

올해 하반기 대기업 공채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업들이 AI(인공지능)서류전형 등을 도입하는 등 자기소개서(자소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자소서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1일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가 올해 하반기 대기업 신입공채 자기소개서 질문 유형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기업별 자소서 질문이 서로 달라 작성법도 달라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동기와 입사 후 포부

취업준비생들에게 자소서 작성 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지원동기와 입사 후 포부다. 지원동기를 쓸 때는 지원 기업에 대한 평소의 관심을 드러내고 입사의지를 강조해야 한다. 대기업 중에는 지원동기에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개인의 성장비전이나 입사 후 포부를 함께 묻는 곳도 있다. 이에 답변하기 위해 기업정보는 물론 산업계 동향과 최신 이슈에 대한 충분한 정보력이 필요하다.

지원동기와 입사 후 포부 질문 유형을 보면, 삼성그룹 계열사의 경우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시오’라고 묻는다. CJ그룹 계열사는 ‘기업과 해당 직무에 지원한 동기’를 물으면서 기업과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



2018 하반기 대기업 신입공채 자기소개서 작성법 /잡코리아

기와 입사 후 해당 직무에서의 성장비전을 반드시 포함해 구체적으로 작성해달라고 요구한다. 롯데그룹 계열사는 ‘입사 후 10년 동안 회사생활 시나리오와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를 포스코그룹 계열사는 ‘본인의 회사 선택 기준은 무엇이며 포스코가 그 기준에 적합한 이유’를 묻는다.

◆성공이나 실패 경험

지원자의 지난 경험을 통해 미래 특수한 상황 발생 시 지원자의 행동을 예상해 보기 위한 질문도 있다. 도전해 성공했거나 실패를 극복한 경험을 해결하는 과정이 잘 드러나도록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전이나 실패의 결과보다는 지원자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기준이 평가 대상이다. 실패한 경험의 경우 실패를 통해 깨달은 점과 그로 인한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

기업별로 지난 경험에 대한 질문 유형 또한 각기 다르다. CJ그룹 계열사의 경우 ‘본인이 참여한 프로젝트 중 주도적/인상

적으로 이끈 경험’을 질문하면서, 경험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과정 중 예기치 않은 변화에 대응했던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작성해달라고 요구한다. 롯데그룹 계열사는 ‘학업 이외에 관심과 열정을 갖고 했던 경험’을, 한화그룹 계열사는 ‘가장 적극적으로 임해 본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 얻은 본인의 변화’를, LG그룹 계열사는 ‘도전적인 목표를 정해 추진했던 경험과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과 결과’를 요청한다.

◆성장과정과 성격

지원자의 가치관이나 성격적 성향이 기업의 경영이념이나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도 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회사의 인재상과 핵심가치, 비전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는게 중요하다. 성장과정에서 강조한 본인의 성향이 지원동기나 경험 사례 등 다른 질문의 답변에서 기술한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하는지도 최종 확인해야 한다.

성장과정과 성격의 장단점을 묻는 질문 유형도 기업별 다소 차이가 있다. 삼성그룹과 포스코그룹 계열사의 경우 ‘성장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나 인물을 포함해 기술하라’고 요구해 유사하다. 두산그룹 계열사의 경우는 ‘본인의 성격의 장단점과 이것이 입사 후 어떻게 활용되거나 보완될 수 있는지 기술해달라’고 묻는다.

◆최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한 지원자의 견해를 묻는 질문도 단골로 나온다. 지원자의 가치관과 관심도나 전문지식의 수준이나 통찰력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지원한 기업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나 트렌드를 선택해 관련한 전문가의 논문이나 연구소의 해석 등을 토대로 향후의 변화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법 등을 위주로 기술하면 좋다. 지원한 기업에 부정적인 주제라면 이를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게 좋고, 종교나 정치적인 이슈는 주제로 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이슈에 대한 자소서 질문 유형으로는, 삼성그룹과 포스코그룹의 경우 ‘최근 사회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선택해 견해를 기술하라’로 유사한 반면, LS그룹 계열사의 경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아가 해당 직무가 향후 어떻게 변화할 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해 보다 구체적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인사담당자 70% “스펙 보단 자소서”

인크루트 기업 202곳 대상 설문
가장 중시하는 문항 ‘직무 경험’

기업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은 지원자의 스펙보다 자소서의 완성도에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인크루트가 기업 인사담당자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사담당자의 61%는 지원자의 스펙이 엉망이더라도 자기소개서가 제대로 작성됐다면 서류에서 통과시킬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완벽한 스펙을 갖춘 지원자의 역량인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가 ‘서류에서 탈락시키겠다’고 답했다.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은 27%에 불과했다.

인사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자기소개서의 조건으로는 ‘직무역량이 효과적으로 제시된 자기소개서’(34%)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지원동기 문항’(23%), ‘지원자의 개별적 특성을 묻는 질문’(18%), ‘입사 후 포부’(10%), ‘NCS형 문항’(10%), ‘성장과정 문항’(4%) 등으로 나타났다.

인사담당자들은 또 지원자가 직무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왔는지도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인상 깊은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본인의 직무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했을 때’(32%)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자기만의 스토리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을 때’(22%), ‘어려운 질문에도 최대한 고민한 흔적이 보일 때’(21%), ‘회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 보일 때’(14%) 등을 꼽았다. /한용수 기자

공항공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 3억5000만원

“김포공항 소음지역 대학생에 지원”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대학생 지원에 써달라며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 3억5000만원을 기탁했다.

11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두 기관은 10일 한국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장학금 기탁식을 갖고 장학금을 해당 지역에 거주중인 저소득층 우수대학생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에도 같은 금액을 기탁했다.

올해 기탁된 장학금은 국내 국적의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생 중 양천, 구로, 부천, 김포, 계양, 광명, 강서 일부지역 거주하는 소득구간(분위) 3구간 이내 저소득



한국장학재단 이정우 이사장(왼쪽)과 한국공항공사 김명운 사장(우측)이 지난 10일 한국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푸른재단 기부장학금 기탁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층 학생을 대상으로 192명을 선발해 각 200만원씩 총 3억8400만원의 생활비 장학금으로 지원된다. /한용수 기자

“고객 통장서 출금 체크카드 수수료 왜 높나”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연구’ 논문
수수료 0.7%p 낮춘 1%이하가 적당

국내 체크카드의 수수료가 외국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사진)는 최근 경주에서 열린 한국경영학회와 한국유통학회 공동 주최 통합학술대회에서 ‘기업규모별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현재 외국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1.58%, 직불카드는 0.47%인데 반해, 한국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현재 약 1.8~2.3%, 체크카드는 약 1.7%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주요 국가 신용카드 수수료는 스위스(2.8%)가 가장



높고, 미국·캐나다(2.0%), 독일(1.75%), 이탈리아(1.7%), 영국·네덜란드(1.65%), 스페인(1.55%), 벨기에(1.5%), 덴마크(0.95%), 호주(0.8%), 프랑스(0.7%) 순으로 높다.

이들 국가의 신용카드 수수료 평균은 1.58%로, 한국의 카드사별 수수료(1.8%~2.3%)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의 체크카드 수수료는 매우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체크카드의 경우 고객 통장에서 즉시 출금되므로 채권의 부실율이 없고, 자금조달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동일한 구조인 은행권의 직불카드와 현금카드의 수수료가 1% 수준인 것을 감

안할 때, 카드사들의 체크카드는 약 1.7%로 0.7%p나 높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체크카드 수수료를 1%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수수료 인하를 위해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에 대한 투명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케팅 비용에 포함된 카드의 할인이나 적립 등 부가서비스 비용 등은 회원을 유치하기 위한 카드사의 회원모집 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다”며 “가맹점과 직접 관계가 미미하거나, 가맹점이 알지 못하는 마케팅 비용은 가맹점 수수료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조달 비용에 대해서도 “기준금리와 CD금리 등이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맹점 수수료는 분명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용수 기자

천재교육 환아 위해 1000만원 상당 책 기증

가톨릭중앙의료원에 참고서 지원

천재교육은 가톨릭중앙의료원에 1000만원 상당의 유아동 및 초·중·고 참고서를 기증했다고 11일 밝혔다.

천재교육은 올해 상반기에도 가톨릭중앙의료원에 1천만 원 상당 학습 교재를 기증했고, 지난 4년간 매년 두 차례 환아들을 위한 학습교재를 지원해왔다.

기증 도서에는 천재교육 베스트셀러인 ▲우등생 국어·사회·과학 ▲우등생 전과 ▲개념 해결의 법칙 기초수학 ▲유형 해결의 법칙 셀파수학(초등 1~6학년) ▲체크체크 국어 ▲피마 수학(1~6단계) ▲LIVE 과

학 ▲수학 비밀일기 등이 업선됐다. 해당 도서들은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7개 병원에 전달될 예정이다.

천재교육 최정민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학업에 정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천재교육은 앞으로도 교육 나눔 및 사회공헌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천재교육 임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 ‘어린이학교 학습봉사단 9기’는 이달부터 약 6개월간 매주 목요일 가톨릭중앙의료원 환아들을 대상으로 수학 수업을 진행한다. /한용수 기자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등 대학중점연구소 12곳 선정

교육부 최장 6년간 연 2억씩 지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18년 인문사회분야 대학중점연구소(대학중점연구소)’ 신규 선정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은 대학부설 연구소를 대학 내 연구거점으로 육성해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5년 도입됐다.

올해 사업에는 인문사회분야 53개, 예술체육 5개, 번역 2개 등 총 66개 연구소가 신청했고, 분야별 전문가 심사를 통해 총 12개 연구소가 선정됐다. 선정된 연구소는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안동대 민속

학연구소,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전남대 교육문제연구소, 청양대 재일코리아연구소, 충남대 경영경제연구소, 한양대 유럽-아프리카 연구소, 충남대 예술문화연구소, 연세대 중국연구원이다.

선정된 연구소는 올해부터 최대 6년 동안 연간 2억 원 내외를 지원받아 신청서 제안한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한용수 기자